EDU-14 행동카드

급할수록 '멈춤→확인→기록→공식 도움' 순서를 지킨다.

1. 경고: 다음 두 달 상환 가능성을 계산하고 추가 차입을 멈춘다.

2. 초기 연체: 금융회사에 조정 가능성을 요청하고 접수·답변을 기록한다.

3. 추심 단계: 연락기록과 금지행위 증거를 모으고 상담·신고한다.

4. 법적 단계: 서류를 방치하지 말고 기한과 관할을 법원·법률구조기관에서 확인한다.

전화·상담 전에 적을 것

-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
- 이미 지급·서명·제공한 것은 무엇인가
- 가진 증거와 남은 기한은 무엇인가
- 원하는 답변·조치는 무엇인가

공식 확인처

- 금융위원회: 개인채무자보호법 안내
- 신용회복위원회: 채무조정
- 금융감독원: 불법사금융 피해신고
- 대한민국 법원: 개인회생·파산

내용 기준 2026-08-24 · 2026년 8월 제1판